

중국의 문화전략 변천考*

김계태** · 노남중***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전략
3. 개혁개방 초기의 문화전략
4. 1990년대의 문화전략
5. 2000년대의 문화전략
6. 시진핑 시대의 문화진흥 정책
7.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이뤄진 1980년대 이후에도 '4개 분야의 현대화'라는 국가 건설의 주된 목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문화대혁명'으로 무너진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복구 및 진흥이 핵심과제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문화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자각이 점차 시작되었고 1982년 9월 28일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편성되었을 뿐 문화건설, 문화진흥 등의 국가 건설의 차원으로까지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문화진흥'이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 『지역발전연구』 제14권 제1호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BASF연구원

의 일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물질문화 건설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면서 중국은 '4개 분야 현대화'의 목표에 근접하거나 도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중국 국민들의 국가적 자부심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大國化'의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꿔 말하면 '정치대국', '경제대국', '과학기술대국'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는 판단 아래 '문화대국' 또한 중국이 이뤄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다.

중국의 체제에서 문화는 이데올로기적인 속성과 역할이 매우 강했다. 하지만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문화의 속성이 점차 변화했다. 중국의 문화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점차 문화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적 효과에 눈뜨는 과정 즉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문화발전 전략의 변화 및 인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향후 한중 문화교류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효과적인 접근경로가 될 것이다.

2.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전략

1990년대 이후의 문화진흥전략은 그 기원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 중국공산당의 문화정책에 두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의 핵심인물인 마오쩌둥은 국민국가 건설과 문화건설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1940년 발표한 저서인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에서 문화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일정한 문화(관념형태의 문화)는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반영인 동시에 위대한 영향과 작용을 일정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에 주고 있다. 또한 경제는 기초이고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나의 문화와 정치, 경제의 관계 및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기본 견해이다.¹⁾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에 세 가지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1)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 제2권, 人民出版社, 1991년, 663~664쪽.

는 '제국주의문화', 둘째는 '반(半) 봉건문화', 셋째는 혁명역량으로서의 '신문화(新文化)'이다. 이른바 '신문화'란 관념형태에 있어서 신정치와 신경제를 반영하고 있고 신정치와 신경제를 위해 봉사하는(服務)하는 문화이다.²⁾

마오쩌둥은 문화를 정치·경제와 병렬시켜 사회발전의 과정에 상호 작용하는 세계의 유기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의 전략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신민주주의론」에서 마오쩌둥은 국민국가로서 새로운 중국의 문화강령을 제기하였다. '5.4운동'³⁾을 기준으로 중국의 문화를 신, 구 두 단계로 나누어, '5.4운동' 이전은 자산계급의 신문화(新文化)와 봉건시대 구(舊)문화와의 투쟁이고 '5.4운동' 이후는 중국의 무산계급과 중국공산당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힘이 등장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문화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신민주주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른바 신민주주의 문화란 한 마디로 무산계급이 주도하는(領導)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의 문화⁴⁾이고 그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민주적, 과학적, 대중적인 것이다. 이러한 신문화의 건설은 정치 건설, 경제 건설 등과 함께 신민주주의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 작업이 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의 정치, 신민주주의의 경제와 신민주주의의 문화가 서로 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중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신(新)중국인 것이다.⁵⁾

마오쩌둥은 또 문화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하며, "새로운 정치역량, 새로운 경제역량, 새로운 문화역량은 모두 중국의 혁명역량이다"⁶⁾라고 말했다.

2) 위와 같은 책, 같은 쪽.

3) 1919년 5월 4일, 북경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발한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운동.

4)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 제2권, 人民出版社, 1991년, 698쪽.

5) 위의 책, 707쪽.

6) 위의 책, 같은 쪽.

신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오쩌둥은 ‘두 가지를 위해’와 ‘쌍백방침(雙百方針)’같은 문화 건설과 문화 발전의 구체적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를 위해’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 한다’는 것이고, ‘쌍백방침’은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을 의미한다.

1) 이위(二爲) 강령

‘이위(二爲, 두 가지를 위해)’라는 강령은 마오쩌둥 문화이론의 핵심적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중국 문화예술계의 핵심강령이라 할 수 있다. 이 강령은 마오쩌둥이 1942년 5월 당시 중국공산당의 수도였던 옌안(延安)에서 문화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발표한 연설의 내용이다. 「옌안 문예좌담회 연설」은 중국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강령적인 문헌으로 현재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누구를 위한 문화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마오쩌둥에 의하면 중국의 신문화는 ‘공농병(工農兵)’ 즉 노동자, 농민, 군인 및 도시소자산계급(都市小資產階級)을 위해 봉사하고 이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마오쩌둥은 “현재 세계의 모든 문화, 문학, 예술은 일정한 계급에 속해 있고, 일정한 정치노선에 속해” 있으며 “문예는 정치에 종속되는 동시에 거꾸로 위대한 영향을 정치에 준다”⁷⁾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마오쩌둥이 주장하는 문화는 정치를 위한 문화인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문화인식 기조는 1949년 건국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전인 1949년 2월, 마오쩌둥은 ‘중화 전국문학예술 공작자 제1차 대표대회(中華全國文學藝術工作者第一次代表大會)’에 보낸 축전에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예를 발전시켜 인민의 교육, 인민의 경제 건설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 이후 1957년 ‘중국공산당 전국 선전회의(中國共產黨全國宣傳會議)’에서 문화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봉

7) 마오쩌둥, 「옌안문예좌담회 연설(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마오쩌둥선집』 제3권, 人民出版社, 1991년, 857쪽.

사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2) '쌍백방침(雙百方針)'

'쌍백방침'은 중국공산당의 발전과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영역을 통솔하는 중요한 강령과 원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 확립되었다.

1954년 4월, '중국희곡연구회(中國戲曲研究會)'가 발족, 성립되자 마오쩌둥은 "백화제방, 추진출신(百花齊放, 推陳出新, 모든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고,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것을 창출한다)"이란 제사(題詞)를 썼다. 그 뜻은 다양한 유파, 형식, 풍격의 문예가 인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원칙 아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후 1956년 4월,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확대회의(擴大會議)에서 「십대관계를 논함(論十大關係)」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예술문제에 있어서의 백화제방, 학술문제에 있어서의 백가쟁명은 우리의 방침이 되어야 한다"⁸⁾고 주장했다. 그 해 5월 26일, 당시 중공 중앙선전부 부장(中共中央宣傳部部長) 루딩이(陸定一)는 문예계와 과학계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쌍백방침이 중국공산당 중앙방침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하에서 사회주의 예술의 민주와 학술의 민주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이 방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마오쩌둥은 문화와 관련된 연설, 문장 등에서 수차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강령을 강조하였다.

백화제방, 백가쟁명은 기본적인 동시에 또한 장기적인 방침인바 잠시적인 방침이 아니며 과학과 예술 발전을 위한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넓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⁹⁾

8) 毛澤東, 『建國以來毛澤東文彙』 제6책, 中央文獻出版社, 105쪽.

9) 毛澤東, 『毛澤東選集』 제7권, 人民出版社, 1997년, 229쪽.

이 방침의 본질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중국의 문학, 예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중국 사회주의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위금용, 양위중용(古爲今用, 洋爲中用)

‘고위금용, 양위중용’ 즉 ‘옛 것을 오늘을 위해 쓰고, 서양의 것을 중국을 위해 쓴다’라는 원칙은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을 원칙으로 중국혁명과 문화 건설을 위해 제시한 방침이다.

항일전쟁 시기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론」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고급중외(古今中外)의 문화성취를 계승,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증유물주의와 과학적인 태도로 중국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장기적인 봉건사회 중에서 찬란한 고대문화를 창조하였다.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봉건적 잔재를 제거하고 그 정화(精華)를 흡수하는 것은 민족의 신문화를 발전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결코 무비판적으로 통틀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대 봉건통치계급의 모든 부패한 것과 고대의 우수한 인민의 문화 즉 민주성과 혁명성을 가진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¹⁰⁾

‘고위금용, 양위중용’의 방침은 ‘백화제방, 추진출신(百花齊放, 推陳出新)’과 ‘고위중용, 양위중용(古爲中用, 洋爲中用)’의 방침이 결합되어 이뤄진 것이다. ‘추진출신’은 마오쩌둥이 1942년 10월 ‘옌안평극원(延安平劇院)’의 설립에 맞춰 쓴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전통희곡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전통 희곡의 우수한 요소를 수용한 기초 위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희곡을 창작할 것을 주문하였다.

‘고위중용, 양위중용’은 1964년 9월 모택동이 중앙음악학원의 학생이 보내 온 편지에 쓴 서면지시에서 처음 나타났다. 당시 중국의 문화예술영역 전반에 배외적인 경향과 민족허무주의적인 경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전통

10)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選集』 제2권, 人民出版社, 1991년, 708쪽.

문화를 계승하고 외국문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 건설에 대하여 많은 독창적인 견해를 제기하여, 이는 중국문화의 건설과 발전 그리고 문화진흥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다.

3. 개혁개방 초기(1978~1991)의 문화전략

1960~70년대의 '문화대혁명'은 중국문화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극좌(極左)' 정치노선에 의하여 비롯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문화대혁명의 전칭)이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문학, 예술, 언론, 출판, 교육 등 여러 문화영역을 폐허로 만들었다.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을 때의 생각은 중국의 문화영역에 잔존하는 부르주아문화를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유불도 등 중국 전통문화의 가치마저 훼손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제2세대 영도집단은 '문화대혁명'을 종식시킨 다음 '문화대혁명'을 포함한 중국 건국 이후의 문화건설에 대해 전반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외 상황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이라는 새로운 문화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에서 비롯된 문화 파괴를 극복하고 중국문화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인민과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문화 발전이라는 마오쩌둥의 문화전략 핵심방침을 계승한 기초 위에 중국의 정치, 경제 영역의 발전에 부합되는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정치, 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기존의 문화전략을 수정

한 새로운 문화전략의 틀을 마련하였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행한 시기는 냉전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로서, 동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었다. 개혁개방을 통해 궤도에 진입한 중국의 경제발전 또한 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떠날 수 없었다. 중국정부에서는 중국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면 문화의 근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쌍백방침'을 계승한 동시에 건국 이후 중국문화의 역사적 교훈을 수용하여 '정신문명(精神文明)의 건설'을 중심으로 문화발전 전략을 확립하였다.

'정신문명의 건설'은 덩샤오핑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낱말이지만 덩샤오핑에 의하여 중국 문화전략의 핵심으로 규정되었다. 덩샤오핑은 "고도의 물질문명을 건설하는 동시에 전(全) 민족의 과학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상하고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발전시키고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해야 한다"¹¹⁾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이라는 개념은 1979년 9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심의, 통과된 덩샤오핑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30주년 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연설에서는 '극좌'노선이 당과 사회주의건설에 끼친 막대한 폐해를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중국 개혁개방의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많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언급하였다. 1980년 12월 중공중앙의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이른바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교육, 과학, 문화를 가리킬 뿐 아니라 공산주의의 사상, 이상, 신념, 도덕, 기술, 혁명적 입장과 원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지(同志)식 관계를 가리키기도 한다"¹²⁾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제11차 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중공중앙(中共中央)에서는 국가건설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였다. 이에 덩샤오핑은 "우리는 현재 두 개의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하나는 물질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문명이다"¹³⁾라고 강조했다. 바꾸어 말하면 덩샤오핑 시대 중국 문화전략 핵심은 중국식 사회주

11) 鄧小平, 『鄧小平文選』 제2권, 人民出版社, 1994년, 208쪽.

12) 鄧小平, 위의 책, 367쪽.

13) 鄧小平, 『鄧小平文選』 제3권, 人民出版社, 1993년, 156쪽.

의 문화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건설은 이러한 전략 아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2)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병행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동시에 단단히 틀어쥐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덩샤오핑의 문화전략은 물질, 정신 두 가지 문명의 공동발전으로,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문화 건설을 중국식 사회주의의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은 물질문명 건설은 반드시 정신문명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정신문명의 확립이 없으면 물질문명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있어서 경제건설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반드시 동등한 보조와 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아울러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동시에 단단히 틀어쥐는다.'라는 전략의 핵심은 정신문명의 건설과 그 작용이다. 이는 덩샤오핑 시대 문화전략에 있어서 정신문명의 건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작용을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문화전략은 사상의 건설, 도덕의 건설, 문화의 건설, '신인간 양성(新人塑造)'이라는 완전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의 건설은 교육, 과학, 문학, 예술, 신문출판, 방송, 위생, 체육,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영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건설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소양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14) 鄧小平, 「中國共產黨第12次全國代表大會上的講話」, '共產黨員網': <http://fwuw.12371.cn/2012/09/27/ARTI1348710255841791.shtml>

3) '세 가지 지향(三個面向)'

개혁개방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고금중외(古今中外)'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덩샤오핑은 '세 가지 지향(三個面向)' 즉 '현대화, 세계, 미래'¹⁵⁾를 지향한다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지향'에서 현대화에 대한 지향은 중국 문화발전전략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세계에 대한 지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지향은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정화(精華)를 취하고 잔재를 청산'¹⁶⁾해야 하며 세계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와 결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세 가지 지향'은 덩샤오핑 시대 문화전략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지향은 문화발전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이다. 덩샤오핑은 요즘 세상이 개방적인 세계라고 정의하면서 중국의 발전 또한 세계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강조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우위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수용하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¹⁷⁾

중국의 문화발전은 글로벌의식, 경쟁의식, 문화의식, 창조의식 등 세계화의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책략을 갖춰야 하고 끊임없이 세계문화의 우수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본받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 전통문화의 민족성을 보존하여 외래의 불순한 사상의 침입과 서양의 문화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화에 대한 지향은 중국의 문화발전이 반드시 중국식 사회주의현대화의 건설과 보조를 맞춰서 하루빨리 중국문화의 현대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15) 중국에서 '현대화(現代化)'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대화'와 비슷한 개념이다.

16) "정화를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한다(取其精華, 去其糟粕)"는 마오쩌둥의 말이다.

17) 鄧小平, 『鄧小平文選』 제3권, 人民出版社, 1993년, 373쪽.

래에 대한 지향은 목전의 문화건설과 미래문화의 추세에 부합하여 미래문화의 발전적 수요에 적응하고, 아울러 역사와 실천으로 문화발전의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인 동시에 문화발전의 도식화(圖式化)를 경계하지는 의미이다.

4. 1990년대(1992~2001)의 문화전략

199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중앙위원회 총서기(總書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어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뒤를 잇는 중국의 제3세대 지도자가 되었다. 중국의 제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다소 경직되고 폐쇄적이었던 문화발전 전략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새로운 방향전환을 이루었다. 이를 기초로 장쩌민은 사회주의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정, 추진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장쩌민은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지는 전략적 목표를 표방하는 동시에 '문화는 종합국력의 지표이다.'라는 방침과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 개념을 제시하였다. 장쩌민 시대의 문화전략은 앞선 시기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전략에 대한 보완으로 문화전략을 종합국력의 향상이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문화소프트파워(文化軟實力)'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충하였다.

1)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전략

개혁개방 이후 추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 와서 대내외적으로 확립되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제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문화발전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야만 했다.

이에 장쩌민은 “문화체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사업의 관련 경제정책을 보완하며 사회주의문화를 번영시키자”¹⁸⁾라는 지시를 내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에 부합하는 문화전략에 대한 창조와 발전에 공을 들였다. 1996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문화시장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진지(障地)”로 “문화시장행위를 규범화”¹⁹⁾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문화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문화사업의 번영과 발전의 근본적인 출로”²⁰⁾임을 강조했다.

1997년 9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식 사회주의문화는 그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개혁개방 이래 우리가 일관적으로 주장해 온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일치한다. 문화는 경제, 정치에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에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다.²¹⁾

이는 문화건설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확정으로 제12차 대표대회에서 제기한 ‘문화건설과 사상건설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두 가지 방향이다.’라는 정의에 비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화건설은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기초 단계의 기본 강령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200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0차 5개년 계획’건의」에서 ‘관리체제’와 ‘문화상품경영기제(文化產品經營機制)’ 등 두 가지 방향의 문화체제 개혁을 요구하였다.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문화의 산업적 속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문화가 종합 국력의 경쟁에서 가지는 지위와 작용이 날로 중요해진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18) 江澤民, 『江澤明文選』 제1권, 人民出版社, 2006년, 238쪽.

19)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할 약간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 人民出版社, 1996년, 31쪽.

20) 같은 책, 32쪽.

21) 江澤民, 『江澤明文選』 제2권, 人民出版社, 2006년, 238쪽.

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당과 국가에서는 문화건설의 전략적 지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쩌민시대 문화전략의 핵심은 문화를 단순한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경제영역 나아가 종합국력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문화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점이다.

2) 종합국력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문화

장쩌민시대 문화전략의 핵심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의 강대 여부는 경제실력에 의하여 결정될 뿐 아니라 문화실력에 의해서도 결정 된다”²²⁾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장쩌민은 “문화는 종합국력의 중요한 지표이다”²³⁾라는 말로 자기의 문화전략을 밝히고 있다.

‘종합국력’이라는 용어는 1970~8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미국의 학자 레이 클레인은 1975년에 출간한 『세계실력평가』에서 ‘종합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87년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간한 『일본의 종합국력』이란 연구보고서에서도 종합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항일전쟁 초기 전쟁의 성격과 전망을 논한 「지구전을 논함(論持久戰)」에서 마오쩌둥은 중국과 일본의 국력을 비교하면서 경제, 군사, 문화 등 ‘국력의 기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종합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력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언급하였다. 그 뒤의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종합적, 전체적으로 한 나라의 종합국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국력’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전략에 있어서 정치, 경제와 함께 문화가 3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1997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는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중요한 역량을 응집한 것으로 종합국력의 중요한 지표이다”²⁴⁾라고 주장하여 문화를 종합국력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22) 劉紀興, 「論江澤民建設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的戰略思想」, 『漢江論壇』 2003년 5호.

23) 江澤民, 『江澤民文選』 제2권, 人民出版社, 2006년, 33쪽.

장쩌민의 주장은 중국 문화전략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탈냉전시대와 글로벌시대의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탈냉전과 글로벌시대에서 국제사회는 점차 군사적인 대치에서 경제적인 경쟁으로, 나아가 문화적인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소프트파워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되었다. '문화는 종합국력의 중요한 지표'라는 강령은 국가건설전략에 있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국공산당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발전은 중국의 사회발전을 이끌었지만 서양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같은 문제들을 생산해 내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에서는 문화 및 문화건설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민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 문화건설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종합국력의 측면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3)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와 '선진문화'

'세 가지 대표'이론은 장쩌민의 핵심적인 지도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선진생산력 발전의 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하고,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한다"²⁵⁾라는 것이다. 이 강령에 '선진문화'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문화전략이 중국공산당의 기본 강령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문화'란 우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반영된 문화이고, 다음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생활이 반영된 문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진문화'에는 우선 중국이 자랑하는 오천년 전통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전통문화의 정화로 중국문화의 민족성을 확보하고 사회주의문화 건설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진문화'는 인류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 우수한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자급자족의 폐쇄적 문화건설이 아니라 전통과

24) 위와 같음.

25) 江澤民, 『江澤明文選』 제3권, 人民出版社, 2006년, 2쪽.

민족성이 확고하고 세계문화의 흐름에 동행하는 문화여야만이 '선진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건설은 문화전략의 핵심내용이 되었다. 장쩌민은 “국가의 전면적인 발전을 이뤄야만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쳐도 진정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경제영역에서만 아니라 사상, 문화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바, 고도의 정신문명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²⁶⁾

장쩌민이 문화를 종합국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시키고 '선진문화'를 중국공산당의 성격규명에 포함시키면서 국가발전전략에서 문화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5. 2000년대(2002~2012)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하는 제4세대 영도집단은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이라는 핵심강령을 기반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과학적 발전관'은 인간중심의 발전관(以人爲本), 전면적인 발전관(全面發展觀), 조화로운 발전관(和諧發展觀), 지속가능한 발전관(可持續發展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학적 발전관'의 강령 하에서 후진타오는 조화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문화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2012년 2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관공청(中共中央辦公廳)과 국무원 관공청(國務院辦公廳)은 공동으로 「국가 12차 5개년 시기(2011~2015) 문화개혁 발전계획 요강(國家十二五時期文化改革發展規劃綱要)」을 발표하였다. 이 요강은 후진타오 시대 가장 핵심적인 문화발전전략 이었으며, 지도방침으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명시했다.

26) 江澤民, 『江澤明文選』 제1권, 人民出版社, 2006년, 579쪽.

첫째, 마르크스주의를 지도로 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時代化), 대중화를 추진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체계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개혁발전이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견지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견지하고, 계승과 창조의 통일을 견지한다. 주선율(主旋律)²⁷⁾을 발양하고 다양화를 제창하며, 과학적인 이론으로 무장하고 정확한 여론으로 인도하며, 고상한 정신으로 인간을 조각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인간을 고무하여, 사회 전반에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정신추구와 건강하고 문명화된 생활방식을 형성한다.

셋째, 인본주의를 견지하고, 진실·생활·군중에 다가서고, 문화건설 속에 인민의 주체작용을 발휘하며, 문화의 발전이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한 문화의 발전성과를 인민들이 공유하고, 인간의 전면발전을 추진하며 이상·도덕·문화·기율을 가진 사회주의 공민을 양성한다.

넷째, 사회효과를 첫 번째로 하고 사회효과와 경제효과와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문화발전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한다. 문화법제를 건설하여 변영과 관리를 동시에 장악하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다섯째,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문화체제 개혁과 기제(機制)의 창조를 추진하며, 발전과 변영을 촉진하고, 문화생산력을 배양하며, 문화의 개방수준을 향상시켜 중화문화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각국의 우수한 문명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의 문화안전을 철실하게 수호한다.

1) '조화로운 문화'

'조화로운 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 중국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조화로운 문화'란 조화를 이념으로 하는 문화의 성질과 형태

27) '주선율':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선전, 문화사업에서 강조하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이며 시대의 주된 가치관을 대변하는 주제를 말한다.

로 인간과 자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조화로운 문화'는 사회풍습, 제도 및 체제, 가치체계, 행위규범, 사상이념, 문화제품 등 다양한 존재방식을 갖고 있다. '조화로운 문화'는 문화형태와 문화현상 중에 조화의 이념을 도입하여 기타의 문화형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조화라는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취향으로 자리매김한다.

사상적 차원의 '조화로운 문화'는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제도적 차원의 '조화로운 문화'는 사람들이 조화의 이념에 따라 이익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 시스템, 규범 등을 의미한다. 문화발전전략으로서 '조화로운 문화'는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문화건설의 지도강령이자 문화건설의 행동수칙이다. 여기서 조화로운 정신은 사상이념, 사유방식, 행위패턴, 인생태도 등 다방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금중외의 모든 우수한 문화의 조화요인을 계승한 것이다.²⁸⁾ '조화로운 정신'은 구동존이(求同存異 -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인위본(以人爲本 - 인간을 기본으로 한다), 이화위귀(以和爲貴 - 화해를 소중히 여긴다), 천인합일(天人合一 - 자연과 인간의 합일), 천하위공(天下爲公 -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등의 가치를 포함한다.²⁹⁾

한 마디로 '조화로운 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가치인 '화(和)'를 기본으로 중국 사회주의문화의 현실적 수요에 맞춰 정제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화체제의 개혁과 문화생산력의 발전

'과학적인 발전관'에서 '조화로운 문화'라는 문화발전전략을 바탕으로 후진타오는 문화체제의 개혁을 통한 문화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문화의 생산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문화의 정신적 가치,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산업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문

28) 劉玉堂, 劉寶昌, 「社會主義和諧文化綜論」, 『中州學刊』 2007년 2호.

29) 康有爲, 『大同書』, 上海古籍出版社, 2005년, 3쪽.

화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의 대(大)발전, 대(大)번영을 추진하는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통과시켰다. 이 문서에는 개혁개방을 한층 심화하고, 문화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한 체제와 시스템건설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구조는 공유제(公有制)를 주제로 하면서 다양한 소유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³⁰⁾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제의 개혁은 꼭 필요하였다.³¹⁾ 대외 개방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발전전략 또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종합국력을 증강하는 목적에 도달해야만 했다. 이러한 전략적 조정의 이면에는 중국의 문화발전이 정치, 경제, 군사력의 발달에 비해 낙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후진타오의 문화발전 전략의 취지는 바로 문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문화의 발전과 중국의 개방적 국가 이미지와의 부조화였다.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의 기초연설에서 후진타오는 "당대의 중국은 이미 전면적으로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 그리고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가속화하여 경제발전패턴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고, 종합국력의 경쟁에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³²⁾

후진타오에 의하면 문화생산력의 향상은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소강'사회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생산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소강'사회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문화적인 사회와 문화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정도에 맞는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30)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 人民出版社, 2011년, 12쪽.

31)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下卷), 中央文獻出版社, 2008년, 373쪽.

32)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 人民出版社, 2011년, 2쪽.

것이다.

3) '문화소프트파워'의 증강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의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문화생산력을 향상시켜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고 민족의 문화적 창의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사회주의문화 건설의 높은 파도를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문화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주체는 인민이며, 사회주의문화의 건설은 인민의 문화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취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에서는 '문화강국전략(文化強國前略)'이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그 핵심은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선양하고, 국민의 소양을 향상시키며, 문화 관리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문화의 응집력, 창의력, 생산력, 영향력, 파급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문화소프트파워'의 증강에 있어서 그 핵심은 사회주의 핵심가치체제로 국민의 교육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통솔하여 국민의 문화자각과 문화자신감을 양성하는 것이다.³³⁾ 또한 사회주의국가 집정당의 이데올로기적인 매력과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소프트파워'의 증강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후진타오의 문화전략에는 이와 같은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인터넷문화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상, 정치적인 사업을 강화하고, 인문적인 관심과 심리적인 소통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중화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중화민족의 공통된 정신적 고향을 건설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와 협력하며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고 그 영향을 넓혀야 한다.³⁴⁾

33) 위와 같은 책, 5쪽.

34) 『十七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卷), 中央文獻出版社, 2009년, 27~28쪽.

셋째, 창의력을 문화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후진타오는 사회적 효과를 문화발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건설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생활을 창조하고 국가적 영예제도를 건립하여 뛰어난 공헌을 한 문화영역 종사자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문화진흥 정책

2012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를 통해 확립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제5세대 영도집단은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아 문화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은 힘들다. 하지만 취임 3년 동안의 문화관련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社會主義核心價值觀)'이라는 새로운 강령이 문화건설의 기본적인 방침임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제18차 대표대회에서 제시되어 꾸준히 보급, 강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경업(敬業)³⁵, 성신(誠信), 우선(友善)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부강, 민주, 문명, 화해는 국가차원의 가치목표이고 자유, 평등, 공정, 법치는 사회차원의 가치취향이며 애국, 경업, 성신, 우선은 공민 개인 차원의 가치수칙이다.

시진핑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체제의 개혁, 문화산업의 발전 등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최종목표는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이다.

35) 경업(敬業)은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한다.

1) 전통문화의 사회적 가치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기초연설에서 시진핑은 “우리는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견지하고 고도의 문화자각과 문화자신감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에서 문화의 역할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서 시진핑 시대 문화전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은 우선 중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통문화의 우수한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3년 3월 1일, 중앙당교(中央黨校) 개교 8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시진핑은 우국우민(憂國憂民), 호연정기(浩然正氣) 등 전통적인 가치를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역사를 배우면 성패(成敗)를 보고 득실(得失)을 비취보며 흥망과 성쇠를 알 수 있다. 시를 배우면 정서를 고양시키고 뜻을 높이며 인성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윤리를 배우면 염치(廉恥)를 알고 영욕(榮辱)을 깨달으며 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³⁶⁾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건전한 사회문화 나아가 정확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건전한 사회문화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경제건설은 시종일관 중국공산당의 중심사업이고 이데올로기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양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어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을 다 함께 잘 해야만 국가의 물질역량과 정신역량 모두 증강될 수 있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의 물질생활과 정신

36) 習近平, 「在中央黨校建校80周年上的講話」, 2013년 3월 1일. '人民網': <http://theory.people.com.cn/n/2013/0304/c49169-20670182.html>

생활 모두 개선될 수 있으며 중국식 사회주의사업은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³⁷⁾

중국식 사회주의문화의 건설은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의 물질적 재부가 전례 없이 증가되었고 동시에 다양한 외래의 가치관들이 밀려들어 중국은 심각한 윤리위기, 도덕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여 문화위기에서 벗어나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인문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자는 것이다.

2013년 11월 26일, 시진핑은 중국전통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고향 산둥성 곡부(山東 曲阜)를 시찰하면서 “나라는 덕이 없으면 흥할 수 없고, 인간은 덕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전 사회적인 사상도덕의 건설을 강화하여 국민의 선량한 도덕염원, 도덕정감을 형성하고 정확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감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덕(德)’은 윤리, 도덕 등 사회적 가치관과 국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소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중국의 경제수준의 발달에 부합되는 문화 전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전통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중국국민의 문화적 자신감을 회복하여 글로벌시대의 도덕적 표준을 다시 확립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립하려는 것이다.

2) 문화소프트파워의 향상과 문화의 산업화

시진핑 시대 시작된 후 3년 간 중국의 문화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문화정책 중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의 증강 즉 문화강국(文化強國)의 건설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문화소프트파워의 핵심이고 문화소프트파워는 문화건설의 핵심이다. 시진핑은 “한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는 근본적으로 그 핵심가치관

37) 위와 같음.

의 생명력, 응집력, 호소력에 의하여 결정된다.”³⁸⁾라고 말했다. 시진핑이 제시한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중에서 충효(忠孝), 평등, 신의(信義) 등 적지 않은 요소들이 전통문화의 가치에서 따온 것이다. 즉 전통문화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도덕적 교양 교본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2차 집단학습에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널리 발양하고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사회주의문화의 대발전과 대 번영을 추진하고 전 민족의 문화 창조력을 향상시켜 문화사업의 전면적인 번영, 문화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여 사회주의문화강국 건설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³⁹⁾

시진핑의 문화정책에 있어 문화창조력의 발전과 문화사업의 번영은 문화의 산업화를 의미한다. 즉 문화의 교육적, 도덕적 효과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추구한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정권 이래 가장 중요한 강령인 「깊이 있는 전면적 개혁을 위해 약간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채택했다. 이 강령의 열한 번째 부분이 「문화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자」이다. 즉, 문화관리 체제의 보완, 현대적 문화시장시스템 구축,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문화 개방의 확대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문화시장 시스템의 구축은 시진핑 시대 문화 산업화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화산업은 문화의 시장화를 전제로 하는 바, 상기 강령에서는 “문화시장의 진입허가제도와 퇴출제도를 완성하여 각종 시장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격려하고 문화자원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⁴⁰⁾라고 규정했다. 아

38) 習近平, 「中共中央政治國第13次集體學習上的講話」, 中和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홈페이지: http://www.gov.cn/ldhd/2014-02/25/content_2621669.html.

39) 2013년 12월 30일,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第12次集體學習講話稿」.

올리 문화기업의 지역 간, 업종 간, 소유제 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 강령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비(非) 공유제 문화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사회자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며 ...(중략)... 다양한 형식의 소형문화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⁴¹⁾

이 강령은 문화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금융자본, 사회자본, 문화자원의 상호 융합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화경제의 정책을 보완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밝혔고, 문화제품의 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우수한 문화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도 밝히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문화전략은 전 시기에 비해 문화발전의 지위를 향상시킨 동시에 상당히 구체적인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제출하고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3) 문화강국(文化強國)의 건설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최종 목표는 '문화강국'의 건설 즉 '문화굴기(文化崛起)'이다. 바꿔 말하면 이는 중국이 자랑하는 '5000년 문화'의 영광을 재현하여 정치, 경제, 군사와 함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화영역에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영역에서 문호개방을 실현하고 중국문화의 세계진출을 추진하여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진핑은 '문화강국'의 건설을 위한 문화전략에 있어서 정부, 기업, 시장,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주도적 지위를 가진 정부가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

40)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人民出版社, 2013년.

41) 위와 같음.

어내며, 기업은 시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 중 특히 국내, 국제 두 가지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문화의 교류, 문화의 전파, 문화의 무역을 추진하여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문화의 대외 개방을 이룩하여 중국문화의 세계 진출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대외 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문화의 세계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인 대외 문화교류는 정부 간의 문화교류를 심화하고 문화교류의 경로를 증가하고 교류의 플랫폼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정부 간 교류와 민간교류를 결합하고 중국문화의 해외진출과 문화영역에서의 해외투자를 적극 권장한다. 또한 문화교류의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교육, 언어, 학술, 연구지원, 문화체육행사, 관광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문화교류의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문화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무역과 투자의 형식으로 문화의 세계진출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의 시장화, 상업화, 산업화의 운영패턴을 적극 모색하고 대외적인 문화기업을 육성하며 문화기업의 해외시장 확장과 대외협력을 적극 권장하여 중국 문화제품이 해외의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관례와 시장의 원리에 부합되는 문화마케팅 방식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문화마케팅 플랫폼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 고유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문화의 '명품'을 생산하여 세계를 상대로 적극 보급해야 한다.

셋째, 중국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여론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의 파급 효과를 높이고, 넓은 영향권을 가진 문화전파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중국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문화교류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대외선전과 전파의 방법을 개량하고, 외부의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정상황, 가치이념, 발전상황, 대내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를 통한 설득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외국의 모든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수용해야 한다. 주체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는 기초 위에 중국의 사회주의문화 건설에 유익한 경험, 중국의 문화생활에

유익한 성과, 중국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경영과 관리에 유익한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영역의 인력을 널리 수용하고 기술과 관리경험을 수용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외국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영역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 개발을 해야 한다.

시진핑 이후 중국문화산업은 이러한 전략에 의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례로 GDP에서 문화산업의 비중이 2010년 2.75%에서 2014년 3.76%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포츠, 관광,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기업의 인수합병은 2015년 한해에만 166건이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1500억 위안에 달해 전지난해보다 50%의 성장을 보였다.⁴²⁾

결론적으로 시진핑 시대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상정된 ‘문화강국’ 전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명명된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과 맞물려서 위로는 사회, 경제, 정치 등 정책적, 전략적 영역, 아래로는 일반 중국인들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7. 맺는 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화진흥전략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 제기된 ‘4개 분야 현대화’에서는 문화진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발전으로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문화대혁명’으로 파괴된 사회적 안정과 문화를 복구하고 문화대국으로서의 우위와 지위를 회복하려는 복안을 깔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문화진흥’은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을 통한 물질문화 건설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제시한 ‘4개 분야 현대화’의 목표에 근접하거나 도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중국 국

42) 「這三年，習近平實踐文化強國的三個思路」，人民網，<http://politics.people.com.cn/n1/2016/0106/c1001-28017373.html>.

민들의 국가적 자부심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국가 및 국민 차원에서 '대국화'의 열망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대국', '경제대국', '과학기술대국'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는 판단 아래, '문화대국' 또한 중국이 이뤄야 할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후진타오 체제 이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이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상정되었다. 시진핑 역시 '문화강국의 건설'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누차 강조하면서 문화진흥을 국가의 물질적 발전과 동등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문화강국화를 통한 국가이미지의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과거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체제에서 문화는 이데올로기적인 속성과 역할이 매우 강해 문화진흥의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사회주의정체성의 확립, 윤리와 도덕 규범의 확립 등 체제와 정치이념의 건설을 위한 기능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콘텐츠로서의 전통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어 문화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관념적 가치 뿐 아니라 현실적 가치로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했다.

중국의 문화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점차 문화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적 효과에 눈 뜨는 과정 즉,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문화진흥전략은 개혁개방의 방침과 맞물려서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개방적인 기초, 민감한 대응, 적절한 시기 변화를 보여주었다.

2017년은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5년, 10년을 획기적인 주기로 인식하는 관례상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교류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邱紅, 「中韓兩國人才交流與合作關係研究」, 『東北亞論壇』 2008년 6호.
- 김도희, 양사오링, 『한중 문화 교류, 현황과 합의 그리고 과제』, 폴리테이아, 2015년.
- 謝傑, 王畫眉, 「互聯網+時代韓劇對華傳播策略的創新發展」, 『編輯之友』 2015년 10호.
- 牛漢杰, 「中韓文化貿易發展現況及對策研究」, 『經濟師』 2015년 11호.
- 劉紀興, 「論江澤民建設中國特色社會主義文化的戰略思想」, 『漢江論壇』 2003년 5호.
- 劉玉堂, 劉寶昌, 「社會主義和諧文化綜論」, 『中州學刊』 2007년 2호.
- 段礦英,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문화외교 탐구(中國對韓國的文化外交探析)』,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년.
- 李婧, 「中韓自由貿易協定對兩國文化貿易的影響」, 『國際經濟合作』 2015년 12호.
- 林文肯, 「開創中韓文化交流與合作的新局面」, 『當代韓國』 2002년 4호.
- 장남, 『한중 문화교류 - 수교이후의 현황과 전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년.
- 張雷生, 安玉祥, 劉渤, 「中韓兩國教育交流與合作述評(1992~2012)」, 『外國教育研究』 2012년 8호.
- 張祖群, 「試論“韓流”影視作品對中國當前文化消費的影響」, 『電影評價』 2015년 12호.
- 張曉明 등, 『中國文化產業發展報告(2015~2016)』, 社會科學出版社, 2016년.
- 鄭成宏, 「韓劇何以打動中國」, 『世界知識』 2015년 4호.
- 朱志强, 「浪漫“韓劇”異托邦的精神之旅」, 『文藝研究』 2014년 12호.

〈Abstract〉

Both Korea and China have been progressing various cultural exchanges bound with 'Confucian cultural areas' or 'Chinese character culture areas' for a long history before modern times. The cultural exchanges of both countries which share 'the cultural genes' focused on buddhism, Confucianism, Chinese character, and law-code had such close and various contents and styles that we can't find precedents easily in human history.

After modern times, with the change of East Asian and international situation, though the cultural exchanges of both countries didn't have the same width and depth as those before modern times, the exchanges in the fields of person, thought, and academy were being progressed with taking the identical national task that they should establish the

modern nation against imperialism. After independence and especially 'the Korean war', as Korea was divided under Cold-war system and China was converted to the socialist nation, the cultural exchanges of Korea and China stopped completely. With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 in 1992, however, the relationship of both countries was normalized and therefore the overall cultural exchanges started, continuing until today.

Key Words: Chinese culture, China's cultural strategy, reformation open, Hu jintao, Xi Jinping

이 논문은 2017년 1월 5일에 접수되어 2017년 2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2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